

남구, 추석 연휴 '병원 7곳·약국 10곳' 13~18일 풀가동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한가위 연휴 기간에 쉬지 않고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7곳과 10곳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최근 광주광역시 의사회와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남구 한의사회, 남구 약사회, 남구 한약사회 5개 협회를 통해 한가위 연휴 기간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닷새간 문을 여는 병원은 총 7곳이다. 4곳

은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종합 병원이고, 나머지 3곳은 병의원이다. 먼저 응급의료 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시티병원, 동아병원 3곳과 응급의료 시설인 빛고를 전남대병원 등 추석 연휴에 목숨이 위태로운 중증 응급환자만 받는다. 응급실도 주야간 24시간 운영한다. 미래아동병원과 순 한방병원, 리더스 비뇨의학과 의원 3곳은 어린이 환자 등 일반 진료를 위해 문을 연다. 다만 병의원 운영 시간은 다른데,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 또는 4시까지 문을 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가위 연휴 기간에 문을 계속 여는 약국은 10곳이다. 그랜드 온누리 약국을 비롯해 나래약국, 다정한약국, 다해약국, 바른약국, 빛고를 종로약국, 온누리 이화당약국, 이약국, 태종약국, 해오름 온누리약국이다. 동네별로 보면 병원이 밀집한 봉선동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주월동에서는 2곳이 약을 짓는다. 또 진월동과 백운동, 서동, 양림동에서도

각각 1곳씩 처방약을 조제한다.

닷새간 연휴 중에 관내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이 문을 여는 날은 14일 토요일로 파악됐다. 이날 병원 146곳과 약국 95곳이 환자를 받는다. 15일에는 병원 13곳과 약국 15곳이, 16일에는 병원 18곳과 약국 25곳이 문을 연다. 또 17일에는 병원 11곳과 약국 12곳이 진료 및 처방약을 제공하며, 18일에는 병원 26곳과 약국 25곳에서 의료 서비스에 나선다. /정희태 기자

서구, 마을자치의 시작 '주민총회' 추진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8월 31일 동천동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17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내년에 추진할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학교(학생)총회, 아파트총회, 마을의례학교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총회에 상정할 마을의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이웃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사업, 동별 마을 BI(Brand Identity) 반영 사업 등이 제안됐다.

서구는 8월 31일 동천동, 양3동, 능성1동, 광천동을 시작으로 9월 5일, 6일, 7일, 21일, 24일, 27일, 28일

에 17개 동의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품담동은 올해 상반기에 총회를 이미 개최했다.

특히 이번 주민총회는 마을 BI를 담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축제형으로 추진된다. 총회는 동별 BI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보고, 내년도 마을의제사업 주민 투표, 다채로운 체험부스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 투표는 온·오프라인 사전투표와 총회 당일 현장 투표로 병행 진행하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의제는 주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올해 18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민자치 활동 자료집(영상·책자)을 제작해 활동사항을 알리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기영 기자

동구, 청렴 토크 콘서트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세대 공감,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 인식 강화를 목표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청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택 구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퀴즈 상반기 우수 3개 부서와 8월 청렴퀴즈 당첨자 시상식을 열었다. OB 대표로는 김선희 차치행정국장, YB 대표로는 교통과 신혜섭 주무관과 회계과 이희진 주무관 등이 참여해 청렴토크를 진행했다.

청렴토크에서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7개 문항에 대해 실시간 전자투표를 하던 그 결과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청렴토크 콘서트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특히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세대 간 존중과 협력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마음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첨단지구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제1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마련한 첫 도심 물 축제가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것.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제1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 성료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최근 첨단지구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제1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첨단 미관광장(쌍암동 666-11) 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7,000여 명 이상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 내내 DJ DOC 이하늘을 비롯한 유명 뮤지션이 총출동한 EDM 공연부터 물총놀이, 거리 춤 공연 등 신나는 프로그램이 펼쳐진 가운데, 어린 자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 나온 가족부터 청년, 첨단지구 주민 등이 축제장을 찾아 올해의 '마지막 여름'을 즐겼다.

아이들을 위한 아동 수영장(키즈 풀), 비류장터, 1천원에 생맥주를 즐

길 수 있는 '가맥존', 첨단1동 상인회 캐릭터 '쌍이아미' 사진관, 지역 상인 배달 서비스, 버스킹(거리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축제 열기를 달궜다.

지역상권도 활기가 들었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으면서 인근 상가 매출이 평소 대비 20~50% 늘었다. 재료가 일찍 소진된 곳도 있었다. /서기만 기자

북구, '도심 속 스마트팜' 개장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북구새마을회 및 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도심심지 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북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최근 마무리돼 오는 2일 '개장식'이 개최된다.

개장식은 북구새마을회 주차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 새마을회장단 등 사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시설 순회, 농산물 나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에 친환경 스마트 농업 시설을 구축해 도시 자원을 혁신적으로 재생한 사업으로 북구새마을회가 주관이 돼 추진됐다.

중문로 59 자투리 공간에 조성된

이번 도심 속 스마트팜은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해 물의 순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기술(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이 접목된 형태로 설계됐다.

북구는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비롯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애쓰신 북구새마을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이번 사업이 북구 마을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돼 지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대학명(가나다순)	설립	지역	유형	비고
건양대	사	충남	단독		연세대(미래)	사	강원	단독	유지*
경남대	사	경남	단독		영남대-금오공대	사·국	경북	연합	
경북대	국	대구	단독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사	초광역 ²⁾	연합	
동명대-신라대	사	부산	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	사	전북	통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사	전남	연합		인제대	사	경남	단독	유지*
동아대-동서대	사	부산	연합		전남대	국	광주	단독	유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사	초광역 ¹⁾	연합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국공사	경남	통합(연합)	
대구한의대	사	경북	단독		충남대+한밭대	국	대전	통합	
목포대	국	전남	단독		한남대	사	대전	단독	
순천향대	사	충남	단독	유지*	한동대	사	경북	단독	유지*

1) 대구-광주-대전 / 2) 울산-경남 / * '23년 본지정 평가 미지정 대학으로 예비지정 자격 유지 결정

■ 국립 일반대 / ■ 사립 일반대 / ■ 전문대